기획특집 광주문제를 둘러싼 문민정부의 정책을 비판한다

오월! "광주는 끝나지 않았다"

국민위원회 서울지검에 당시 관련 책임자 35명 고소

한세대, 두세대가 지나고 그 시대가 갖고 있는 숨은 진실은 민중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게 마련이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후 두 번째의 5·18을 맞이하는 광주의 민중들은 그간 숨죽이며 쌓아왔던 해묵은 목소리를 내뱉고 있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14주기를 맞이하는 80년 5월 광주의 숨은 진실을 찾으려는 해묵은 목소리는 정부의 그 어떠한 보상보다도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편집자 註〉

Ⅰ. 정부의 입장

민족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참극을 연출한 5·18광주민중항쟁 14주기를 맞이했다.

그러나 광주항쟁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 항쟁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내세우는 문민정부는 5·18 '해결'방식을 둘러싼 논쟁을 지루하게 벌이고 있다. '12·12가 하극상에 의한 군사쿠데타적 사건'이라는 결론을 내린 김영삼 대통령은 그러나 5·18에 대해서 '5·18의 진상규명은 역사에 맡기자'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민중항쟁이 현대 역사의 한 페이지로 등장한 것은 지난 12대 국회에서 처음 논의된 후 13대 국회에서 청문회를 통해 사태의 심각성에 의미를 부여한 이후이다. 그러나 당시 사건의 주모자들이 정권을 잡고 있던 현실에서 책임자에 대한 문책의 외미는 오히려 광주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시민들로 하여금 책임자에 대한 면죄부를 부여하도록 의미지어 버렸다.

김영삼 정부는 광주민중항쟁을 새롭게 평가한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그러나 진상규명 차원에서 광주사태의 학살자와 책임자를 제대로 가려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자체를 역사적 사건으로 묻어두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현재 김영삼 정부가 보이고 있는 개혁정책의 실패와 각종 정쟁의 혼선, 보수세력의 저항 등에 의해 광주문제의 진상규명은 아직도 그 가능성을 바라보고 있는 시민들로 하여금 책임자에 대한 면죄부를 부여하도록 의미지어 버렸다.

김영삼 정부는 광주민중항쟁을 새롭게 평가한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그러나 진상규명 차원에서 광주사태의 학살자와 책임자를 제대로 가려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자체를 역사적 사건으로 묻어두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현재 김영삼 정부가 보이고 있는 개혁정책의 실패와 각종 정쟁의 혼선, 보수세력의 저항 등에 의해 광주문제의 진상규명은 아직도 그 가능성 자체가 의문시되고 있는 것이다.

Ⅱ. 허울좋은 정부의 5·18 해결방안

광주 해결의 기대속에 문민정부가 들어선 지 1년이 지났다. 김영삼 대통령은 "진상규명은 역사에 맡기자"고 본질을 흐리는 발언을 작년 5월 13일 담화에서 발표했다. 진상이 알려지고 책임자가 명백해진다면 당연히 뒤따를 책임자의 처벌문제를 정치적부담으로 떠맡고 싶지 않다는 의도일 것이다.

김영삼 정부는 진상규명을 뒤로 미루고 망월동 묘역의 성역화나 얼마 안되는 보상을 그 고소를 당했다.

최근 광주시의회가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조사에 응한 대상자 73%가 '광주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는 현재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광주문제 해결정책이 논리적으로 순서가 잘못된 것임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정부는 5월사태에 대한 사실 광주사태의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진상규명의 요구는 수그러들기는 커녕 점점 증폭되어 광주사태를 일으킨 책임자 35명이 광주시민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 "진상규명은 역사에 맡기자"

광주시민 "문제 해결은 진상규명뿐"

Ⅲ. 시민들의 항거

내년 5월이면 수사당국의 광주사태 책임자 사법처리 공소시한이 끝나게 된다. 이에 따라 광주시민은 물론 전국적으로 5·18진상규명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에 지난 13일 '5·18진상규명과 광주항쟁정신계승 국민위원회' (위원회 공동대표 이창복 등)는 서울지방검찰청에 광주사태 관련자 35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시했다. 이번 고발장에는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 당시 진압군 지휘관 35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최근 삼청교육대 문제를 둘러싸고 당시 삼청교육대 피해자인 최재효(54)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대구고등법원이 원고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는 직무상 중대한 과실을 범했을 때도 법적제재를 당하지 않는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까지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민사상의 소송이 가능해 졌다는 결론을 가져온 것이다. 또한 5월 광주문제에 있어서도 책임자의 직접적인 처벌을 볼을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 셈이다.

정부의 미온적인 입장에 맞서 시민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같은 움직임들은 삼청교육대 문제를 계기로 광주문제의 해결에 한발짝 다가선 것이라 하겠다.

〈모상용 記者〉

사건일지

▲79년 10월 26일-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박정희 시해사건을 계기로 전두환 보안사령관 합동수사본부장 취임
▲27일-전국에 비상계엄령 선포,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최규하 국무총리 임명
▲12월12일-정승화 육군참모총장 박대통령 시해범 김재규와의 관련 혐의로 체포됨(12·12사태)
▲80년 2월25일-3김회동, 개헌·복권 등 의견 교환
▲2월29일-김대중씨 복권, 양김진영 이질화 고조
▲4월7일-김대중씨 신민당 입당 포기 선언
▲14일-전두환 보안사령관 중앙정보부 장직 겸직
▲4월17일-서울지역총학생회장단 비상계엄 해제·개헌논의·학원 민주화 등을 요구하는 '시국공동성명서'채택
▲5월15일-전국 대학생 유신철폐와 계엄해제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 전개
▲5월17일-계엄군사령부 비상계엄확대조치결의, 전두환 5·17군사쿠데타 감행 '서울의 봄'을 무너뜨리고 '안개정국'의 실세로 등장
▲5월18일-최규하 대통령 비상계엄확대 발표, 광주주둔 공수부대(계엄군) 시위대 진압 개시, 33대대 주력부대 전남대 장악, 전남대학생 '비상계엄 해제, 공수부대 물러가라'란 구호를 외치며 전남대 정문에서 시위, 계엄군 제1차 '화려한 휴가'작전 개시
▲19일-계엄사 장갑차를 앞세운 11공수여단 병력 투입, 학생시위 중심에서 시민대중으로 시위중심이 바뀜, 군·경과 시민 공방전 개시
▲20일-새벽6시 김안부(35세, 노동자)씨의 시신 발견, 시민들 산발적 시위전개, 운수노동자 차량시위(전남 도청앞), 군경자위권 발동 무차별 사격 단행, 시위대 세무서 예비군 무기고 탈취
▲21일-공수여단 조선대와 전남대 철수, 시내·외 전화·교통두절, 시위대 아세아 자동차로 몰려가 장갑차량 56대 탈취, 계엄군의 LMG공격으로 시민군 20여명 사망, 시민군 LMG 시험발포, 시민군 도청 완전 점수
▲22일-계엄군 시외로 빠져나간 학생·시민 무차별 사살, 시민군 5·18 수습대책위원회 구성
▲23일-시민군 사격훈련, 계엄사 공고문 게시, 시민군의 시가행진중 총사망자 23명, 행방불명자 2천여명, 피연행자 1천여명, 제1차 민주수호 범시민궐기대회 개최
▲24일-시민군 중 일부 명예협상과와 투항파의 무장해제 시도로 시민군의 동요가 일어남, 지도부 투항노선에 반대하는 학생들 새 지도부 구축문제 제기, 제2차 시민궐기대회
▲25일-3차 시민궐기대회, 새 지도부 구성,무기반납중단, 투쟁의 조직적 시도 계획
▲26일-시민군 전열정비, 기동타격대 편성, 계엄군 도청지하실에 잠입하여 보관중이던 TNT의 뇌관 제거, 계엄분소 부사령관 시민군에 최후통첩
▲27일-새벽3시 계엄군 진압작전 개시, 계엄군 작전개시 4시간 만에 도청 진압

강단시론

박 종 국

〈정경대 교수·경제학〉

'재벌은 해체돼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계에서는 때아닌 별들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문민정부가 들어서기 이전의 군사통치 시절에 군인들에 의한 별들의 전쟁과는 판이하게 다른 양상이지만 힘의 논리라는 면에서는 차이가 없다. 경제계에서 별이란 몇몇 재벌 총수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들은 자신이나 자신의 선친이 달성한 재벌의 외모를 더욱 크게 하고, 다양하고 멋있는 모든 업종을 망라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단일업종의 기업을 소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재벌들은 경제학의 원칙인 기업의 '효율성'에는 둔감한 그래서 현재 유행중인 용어인 국제 경쟁력을 달성하는데는 매우 게으른 반면 국내의 경쟁사와는 보기에도 안스러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재벌실태

우리가 재벌이라고 하는 것은 독과점규제 및 공공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대규모 기업집단'을 통칭하는 말이다. 시행령은 자산총액이 4천억원이상인 기업집단을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재벌의 수는 1990년 현재 53개로서 계열기업은 총 7백98개에 이르고 있다. 현대와 삼성이 각각 36개, 대우가 26개, 럭키금성이 56개 등을 가지고 있고 단 4개의 계열기업을 거느린 재벌도 있다. 1987년 현재 우리나라 30대 재벌은 제조업의 경우 모든 법인기업의 1%를 훨씬 밑도는 2백70사에 불과하나 출하액은 제조업 전체의 37.2%를, 그리고 고용은 18.1%를 점유하고 있다. 재벌기업은 은행여신에서 독과점적 대출을 받고, 지방은행 및 제 2금융권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벌은 생산을 통한 경제력 집중 못지 않게 토지 등 부동산을 매입함으로써 자산을 늘려 왔다. 정부는 한때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처분을 지시한적이 있는데 그 실적은 매우 미미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재벌의 토지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다. 상위 5대 재벌의 총수가 보유하는 주식의 개인지분과 계열회사 지배지분을 합하면 51.6%가 된다. 20% 이상의 개인지분을 확보하면 주주의 지배력을 갖는다는 사실을 볼때, 이 정도의 지배지분을 재벌의 모든 계열기업의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100%의 독점을 가능케하는 수준이다.

재벌에 속한 기업중에는 대규모의 성장을 이룩하고 상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며, 첨단기술분야에서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중화학 공업에서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발돋움 하는 등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1960년대와 70년대 재벌에 의한 생산 및 수출주도는 눈부신 역할을 해 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가 발전하고 규모가 커짐에 따라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현상은 생산면에서 경쟁의 배제, 문어발식 확장, 토지소유의 편중 등으로 생산비와 상품가격을 상승시켰다. 또한 분배면에서 소득과 부의 분배를 지속적으로 집중시키고, 지가와 집값 상승 등으로 근로자의 생계비를 임금상승폭 이상으로 올리는 등 시민의 경제생활에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해왔다.

문민정부의 경제개혁

작년에 출범한 문민정부는 경제를 살리고자 경제개혁을 외치고 있으나 재벌정책에 있어서는 재벌의 초비만화 방향으로 달리고 있다. 그동안 금지됐던 수도권내의 대기업 우선 공장 증설허용으로 1백 57개의 중소업체가 수도권에 공장을 마련할 수 없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6월까지 공기업을 매각해 민영화할 예정이고 이후에도 계속 민영화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따라 재벌들은 수익성과 장래성이 좋은 공기업만을 골라서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국민의 세금으로 자라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알짜 국민기업을 자금력을 바탕으로 재벌이 사유화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재벌이 인수할 경우 비효율적 운영이 우려되기 때문에 공기업은 건실한 중소기업이나 연관기관이 인수하든지 아니면 국민주로 전환하는 방식을 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5·6공시절 계을리 했던 항만시설, 도로망, 그리고 공항시설 등의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하는 일환으로 민간기업의 참여를 허가하고 있다. 사회간접시설은 전형적인 공공재로서 이를 배부른 재벌들에게 사유화시킬 경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정부는 재정의 효율적 분배를 위해서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여 이를 하루 빨리 확충해야 할 것이다.

문민개혁의 실상

현 정부의 경제개혁은 금융실명제 실시를 제외하고는 말로만 개혁일 뿐 효율성을 제고하는 경제정책다운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재벌의 비대화를 묵인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밀고 나갈 때 국민이 입게 되는 피해는 막대하다.

국제화와 개방화의 파고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재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우리나라 재벌의 논리는 30년전에 매우 유효했던 논리일 뿐이다. 1990년대의 재벌은 경제의 견인차라기 보다는 새로운 도약을 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무거운 짐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생산성 증대를 소홀히 하고, 자체 기술개발보다는 외국기술을 앞장서서 수입하여 높은 로열티를 지불하고, 돈이 된다 싶은 중소기업은 가용한 모든 로비활동을 통해 흡수해버리고, 정경유착으로 온갖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한 전설속의 괴물과 같은 재벌의 해체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新綠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눈은 높게, Height! 마음은 깨끗하게, White!"

신록은 잿빛된내 나는 새순이 아니다.
그렇다고 떨어짐 날을 기다리는 낙엽도 아니다.
촉촉한 대지에 깊게 뿌리를 박고,
태양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신록—

5월엔,
밝은 얼굴, 싱싱한 어깨의 여러분이 바로 신록이다.

자— 잔을 높이 들어, Height!
마음을 깨끗하게, White!

젊음에의 건배. HITE가 함께 합니다.

지하 150m의 100% 암반천연수로 만든—
하이트 맥주

©1994 King Features Syndicate, Inc.